

# 제2회 완도장보고마라톤대회 성료



완도군은 지난 3일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800여명의 마라톤 동호회원이 참가하여 제2회 장보고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장보고 대교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서 800여명 참가  
“대회 지속 유치해 자연환경 우수성 홍보”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남 지역 동호회원 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등 전국 다양한 지역 동호회원들이 참여하여 장보고 대교 개통을 기념하는 코스에서 청정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각자의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되었다.

대회 결과, 하프코스 남자부 이재식 선수가 1시간 14분 기록으로 우승하였으며, 하프코스 여자부 김향희 선수가 1시간 32분 기록으로 우승하였다.

하프코스에 참가한 이종희(부산 구성성당 마라톤 선교회) 선수는 “부산에서 완도까지 오는 거리 멀었지만 코스를 달려보니 정말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면 달렸던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마라톤 대회와 같은 각종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완도의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동호회원들에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도=김광수 기자



## 무안군, 'Fun Fun 하게 놀자' 발표회

### 문화예술 배워 불우이웃 위문공연 나눔까지

무안군이 주최하는 퍼블릭 프로그램인 <한국놀이 Fun Fun 하게 놀자>에 참여한 군민들이 지난 1일 디아코니아 노인요양원에서 발표회를 통해 문화 나눔 활동을 펼쳤다.

퍼블릭 프로그램 'Fun Fun 하게 놀자'는 201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안군 송달 문화예술화판이 주최하고 극단 갯돌이 주관하며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무안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무안군민들이 연극이라는 매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작 작품을 통해 서로 간 유대감을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한편, 향후 아마추어

어 군민극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는 참여자들이 배우는 문화예술에서 그치지 않고 소외 계층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되어 무안 디아코니아 노인요양원을 찾아 문화 나눔 활동을 펼쳤다.

공연에서는 지난 3개월간 교육받고 수료한 교육생 12명이 갈고 닦은 마당극을 비롯해 탈놀이, 난타, 소고춤, 옛장수 놀이 등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목제품 '반' 우수디자인 선정

### 음식 나르는 쟁반과 상 역할하는 소반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가 만든 목제품 '반' (dining table)이 2017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 선정됐다.

'반'은 음식을 나르는 쟁반과 상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소반이다.

여성이 혼자 들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깨 너비 이내의 작은 크기로 가벼운 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일식 생활하는 주거 형태와 좌식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모두 어울리고 차탁 겸 사이드 테이블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가구다.

다양한 그림을 레이저 새긴 상판과 받침이 분리되는 형태로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며 공간의 활용과 보관을 용이하다.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우수한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을 다수 확보하고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김종민 기자

## 장흥군 “숲도가꾸고 땀감도 나누고”

장흥군은 2017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난방용 화목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작년 참여자들은 미리 선정된 20가정을 직접 방문해 땀감을 전달했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12년째 추진되고 있다. 산림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거

사랑의 땀감 나누기, 1톤 화물차 20대분 취약계층에 전달  
산림 부산물 수거해 산불예방·일자리 창출·이웃돕기 실천

지난 2일 열린 행사에는 국제와이즈맨 장흥클럽(회장 김봉렬), 산불진문예방진화대원,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1톤 화물차 20대분의 장작을 손

해 산불과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경관보호, 녹색일자리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랑의 땀



감 나누기는 산림환경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 건강한 노년 만들기...환자·가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치매의 예방·관리·치료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보건소 3층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읍·면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으며, 전문 인력 5명도 확충했다.

군은 치매 상담실, 교육실, 원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가족상담,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예방교육과 치매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인프라 구축



을 위해 10월 14일부터 보건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실버인지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고위험군·정신질환·가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겠다”며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산양삼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